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4, 6-7)

제1독서 사도 6,1-7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화답송 시편 33(32),1-2.4-5.18-19
(◎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저희가당신께바라는그대로-자애를베푸소서

- 의인들이,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제2독서 1베드 2,4-9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요한 14,1-1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7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8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복음 묵상

‘어떻게 ….’ ‘어떻게 ….’ 토마스는 ‘어떻게’ 에 묶여 있습니다. 토마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어떻게’ 는 토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어떻게’ 를 찾아 나서는 것은, 지도도 없이 미지를 탐험하는 일과 같습니다. 토마스와 필립보는 자기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실은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마디가 ‘머물다’ 입니다. 함께 머무는 것은 경험과 이해의 사전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와도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함께 머물기가 그리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자문해 봅니다.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 사이에, ‘통할 수 있다는 사실’ 이 통하지 못하는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해서, 너무 미워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되짚어 보아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해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예수님, 자신이 갈망하는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부여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 안에서도 자유로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펼치실 수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탄의 행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작 우리의 편협한 뜻을 이루시려고 육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 보아야겠습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기도는 믿음의 숨결이며, 믿음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를 주제로 하는 교리 교육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숨결이며, 믿음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외침과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인 바르티매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마르 10,46-52 참조). 이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이야기보다 가장 귀여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예리코의 변두리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인물이 아니라, 얼굴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앉은 곳을 지나가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예리코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순례자들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나다니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바르티매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 갔던 자캐오를 기억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캐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바르티매오는 고함치는 목소리처럼 복음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 하지만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티매오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소리칩니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47절)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함쳤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외치자 사람들은 귀찮아졌습니다. 예의 바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자코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구시오!” 하지만 바르티매오는 잠자코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47절). 은총을 구하고, 하느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사람들의 이런 고집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는 외치고 두드립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서 멸시를 받던 바르티매오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함소리를 듣습니다. 바르티매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하십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곧, 외침이 청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51절 참조).

예수님이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52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멸시받는 바르티매오에게서 하느님의 자비와 힘을 끌어내는 믿음의 온전한 힘을 다시 인식하십니다. 신앙은 들어올린 두 손과 고향치는 목소리를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청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리서는 **“겸손은 기도의 초석”**(『가톨릭교회 교리서』, 2559항)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땅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흙(humus)에서 나옵니다. 흙이라는 말에서 “겸손함(umile)”과 “겸손(umilt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우리 불확실성의 상태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갈증에서 나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60-2561항 참조).

우리는 바르티매오에게서 믿음이 외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그 외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르티매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으나, 바르티매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종의 “묵비권 행사”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거슬러 저항하는 것이지만,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적응한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신앙은 구원받기를 희망하지만,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악에 적응하여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르티매오의 외침과 함께 수요 일반알현 교리 교육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에 이미 모든 게 적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르티매오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청원해도 소용이 없다고, 청원하는 것은 응답 없는 외침일 뿐이라고, 그냥 귀찮은 소음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니 소리지르지 말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결국엔 바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어떤 반대 주장보다 더 강력하게 청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여정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들은 피조물 전체에 아로새겨져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것이 자비의 신비를 통해 자신의 궁극적인 완성을 찾으려고 청원하고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고향소리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눕니다. 지평은 아직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로마 8,22)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이러한 피조물의 ‘침묵의 고향소리’를 표현합니다. 그 침묵의 고향소리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억압받은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걸인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59항 참조). 인간이 “하느님께 비는 걸인”이라는 표현은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황, 5월 14일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의 날’로 선포

“코로나19 극복, 모든 그리스도인 힘 모으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류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5월 14일 하루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을 통해 주님께 간구하자고 요청했다.



교황은 5월 3일 교황궁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부활 삼종기도를 주례하면서 5월 14일을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의 날로 선포했다. 교황은 “이제 막

시작된 5월은 성모성월로 우리 신앙인들은 성모와 관련된 성지를 방문해 왔다”면서 “올해는 보건상황 때문에 영적으로 이러한 신앙과 헌신의 장소를 방문하며 성모에게 우리의 근심과 기대, 미래에 대한 계획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기도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면서 “**오는 5월 14일에 모든 종교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의 날을 지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자**”고 말했다. 교황은 “꼭 기억해달라”면서 “오는 5월 14일, 다양한 그리스도인 종단 신자와 더불어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단식하며 자선 활동을 하자”고 당부했다.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의 날 지정은 인류형제애 고등위원회(Higher Committee of Human Fraternity, 이하 위원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9년 아랍 에미리트 사막방문 중 셰이크 아흐메드 무함마드 엘 타예브 대이맘(Grand Imam)과 공동 서명한 ‘종교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인류 형제애 공동 선언’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설립된 단체다. 위원회는 종교 간 대화와 교류를 증진하고, 서로 다른 종교와 국적, 문화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과 수용이라는 가치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계속 주시해오던 교황은 이날 “다시 한 번 코로나19 환자와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친밀함을 전한다”면서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협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신문>



본당 미사 중계

<http://www.stpaulchung.org/mass.html>

• 성 정바로 성당 웹사이트를 통해 **본당 미사를 생중계**하니 신자들은 가정에서 미사 참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사제관 경당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우들은 **평화방송** 또는 **유튜브 TV 매일미사**를 시청하시며 함께 참례하시고 신영성체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매일 **밤 9시**에 신자들을 향해 사제의 강복으로 **한마음 기도 시간**을 갖고 있으니 교우 여러분들도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한반도의 평화,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주모경 1회**
- ②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 ③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의료진 및 봉사자**, 각자의 지향으로 **묵주기도 5단**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성사에 대하여

- **병자성사 및 병자 영성체** :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혼인 및 장례예식** : 혼인예식을 연기하지 못하는 상황과 장례예식은 10명 이하의 직계 가족 참석하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신영성체** : 영적(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원의를 지닌다면 성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의 날 : 5월 14일

- 코로나19의 극복과 종식을 위해 교황님께서 요청하신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의 날’(5월 14일)**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기도와 단식을 통한 우리의 정성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미사 책 우편 송부

- ‘매일미사’ 구독자 중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성명(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한성은 모니카(571-331-0391)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

-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성경 필사 및 성경 읽기, 기념집을 위한 원고, 기념 표어 공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 주교님 사목 보조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본당은 **BLA 목표 금액의 80%**를 달성했습니다.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업무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당 사무실은 예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장례예식, 개별 미사 지향, 교무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3-968-3010)

버지니아 성정 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5월 14일(목) 오후 5:00-6:00 • **특집: 임 따라 한평생 -**
- 5월 15일(금) 저녁 8:00-9:00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최기식 신부(1)**
- 5월 17일(일) 오전 6:00-7:00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5월 13일(수) 오전 6:15-6:45 | 5월 16일(토) 오전 8:00-8:30

- **윌스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7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들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챌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